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 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2(통11).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분주함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낙심하여 좌절했을 때, 주님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해를 넘기는 이 주간, 우리의 삶을 고요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기심, 고집, 게으름, 오해와 미움 등 오랜 시간 우리의 영혼에 찌들어 있는 그릇된 것들을 씻어내시고,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 인생길에 가장 좋은 동행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눅2:30-32 인도자

♠ 교 독 문 59. 시편136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이명희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01(통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함께

성경봉독 I. 고전3:10-17 김제우 학생

..... II. 사63:7-9 이성범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참 좋은 교회 이성운전도사

..... II. 변함없는 사랑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391(통446). 오 놀라운 구세주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살아온 날을 고요히 되돌아보십시오.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굳건한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그릇된 반복을 멈추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새로운 마음을 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개척자들' 아채 활동 보고	목요일 저녁 11시
유복희 간사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박혜경 권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송동준 조관행 장혜숙 이영란 홍선희
	헌금위원	한상익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무위당 장일순의 일화들

◆ 양승학은 카톨릭 센터 지하에서 수족관을 하고 있다. 장일순은 그 근처에 갈 때면 가끔 양승학을 만나기 위해 수족관에 들렀다. 그곳에서 장일순은 양승학이 타서 내놓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양승학이 장일순에게 물었다. 평소 궁금하게 여기던 것이었다. “선생님, 어떤 글이 정말로 훌륭한 글입니까?”

장일순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길을 가다가 자네도 아마 봤을 거야. 왜 리어카나 포장마차에 ‘군고구마 팝니다’ ‘붕어빵 팝니다’하고 써놓은 글이 있잖아? 그런 글이 정말로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는 글이야. 꼭 필요한 글이지.”

양승학은 장일순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모양이야 어떻든 꼭 필요해서 정성을 다해 쓰는 글이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 뒤로 저의 큰 핸디캡 중에 하나인 악필에 대한 부끄러움이 싹 사라졌어요.”

드라마 작가인 홍승연은 이런 글을 보내왔다.

“글씨를 써서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추운 겨울날 저잣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써 붙인 서툰지만 정성이 가득한 군고구마라는 글씨를 보게 되잖아? 그게 진짜야, 그 절박함에 비하면 내 글씨는 장난이지. 못 미쳐.’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군고구마, 실비집, 빈대떡과 같은 글씨들이 아름답게 보여 선생님 글씨는 내게서 냉대를 받는 편이다.”

◆ 목사 이현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글귀가 하나 있다. 개문류하가 그것이다. “노자를 함께 읽던 어느 날, 작은 메모지에 ‘개문류하開門流下’라 쓰시고, ‘밑바닥 놈들과 어울려야 개인도 집단도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아래로 흘러간다. 이 자세야말로 선생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참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을까? 아니다. “이어서 뒷면에 ‘하심모경시

수도인청정심下心慕敬是修道人淸淨心'이라 써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자신을 낮추고 남을 공경하고 높이는 것이 곧 수도인의 바른 마음이라!

장일순은 자주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래로 아래로 자꾸 내려가야 해. 한 순간이라도 하심을 놓치면 안 돼. 야운조사野雲祖師의 시에 이런 게 있다네.

너와 나 사이의 산이 무너지는 곳에서
허튼 짓만 하지 않으면 도는 스스로 높아진다
자기를 한사코 낮추는 자에게는
온갖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리니

꼭 그렇다네, 잠시라도 모가지를 세우는 일이 없어야 돼.”

◆ 외국의 한 기자가 장일순을 찾아와 물었다.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일순이 되물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혁명을 묻는 거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걸 묻는 거요?”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오.”

기자가 놀랍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 혁명도 다 있습니까?”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꺼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삶은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지요.”

장일순은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서로 때를 닦되 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

서로의 때를 닦으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보듬어 안는 정성으로 그 일을 해야 하리라.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때도 못 닦고 사람도 잃게 되리라.

- 최성현, 「좁쌀 한 알」중에서

송년

기러기떼는 무사히 도착했는지 / 아직 가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깊은 밤하늘에 / 형제들은 아직도 걷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별빛은 흘러 강이 되고 눈물이 되는데 / 날개는 밤을 건널 만한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린 / 아름다운 꿈들은
정다운 추억 속에만 남아
불러보는 노래도 우리 것이 아닌데
시간은 우리 곁을 떠난다
누구들일까 가고오는 저 그림자는 / 과연 누구들일까
사랑한다는 약속인 것같이 / 믿어달라는 하소연과 같이
짓곳은 바람이 / 도시의 벽에 매어달리는데
휘적거리는 빈손 저으며 / 이 해가 저무는데
형제들은 무사히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 쓸쓸한 가슴들은 아직도 가고 있는지
허전한 길에 / 쓸쓸한 뉘우침은 남아
안타까운 목마름의 불빛은 남아
스산하여라 화려하여라.

- 김규동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규석 박경원 박병구
 김정애 손성현 안정숙 오자영 강순배 이예정 임승동 백혜숙 장성호
 허호범 박성실 박효선 조병무 송양진 장원호 박성희 이성운 이봉옥
 임 영 정경례 정미경

월정헌금:

김순자 박준규 서지영 박준희 이기분 윤성중 김윤정 하현철 최성애
 백성래 정완숙 김재광 박상규 최동운 박찬정 이경남 황의일 문홍일
 권미정 박석희 조항미 이소순 김시영 정원석 김현영 이수정 배재경

감사헌금:

전충길 이건식 신영신 한훈식 권채영 서정순 전성오 이유일 김미희
 최재욱 이수정 박병구 김정애 황경순 이우원 옥귀희 무명4
 우주연 노우종 권명자 임정자 윤정덕 김지원 무명1

녹색꿈 헌금:

이나단 최윤희 최경미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송년주일** :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 년의 여정을 감사히 되돌아보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십시오.
 2. **임원회** : 예배 후에 12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3. **선교회 회장단 모임** : 오후 1시30분에 세미나실에서 2010년 선교회 회장단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4. **아체 활동 보고** : 오늘 오후 집회는 '개척자들'의 아체 활동 보고회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5. **송구영신 예배** : 이번 주 목요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6. **수요집회** : 이번 주 수요집회는 쉽니다.
 7. **신년주일** : 다음 주일은 2010년 첫 주일입니다. 1,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8. **주일 오전 성경공부** :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주일오전 성경공부가 다음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9. **새교우 교육**: 새교우의 정착을 돕기 위한 4주간의 교육이 다음 주 오전 9시 40분부터 유치부실에서 시작됩니다. 2009년도에 등록하신 교우분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을 이수해야 입교인이 됩니다.
 10. **선교회 주관 예배** : 내년부터 매월 첫째 주 오후집회는 선교회 주관 예배를 드립니다. 1월은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 주관입니다. 인도와 기도와 특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다음 주 : 갈라디아 속)
 * 설거지 봉사 : 한상의 이준하 (다음 주 : 윤석철 이준하)

새교우 소개

장석원(5남)

김주일(청년부)

노우종(5남)

우주연(8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